

시편: 84장

후렴: (순례의 길을 떠날 적에 주께 힘을 얻는 자 복되나이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리니,
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순례의 길을 떠날 적에
주께 힘을 얻는 자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만군의 하나님,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며,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으니
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임이니다

만군의 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순례의 길을 떠날 적에 주께 힘을 얻는 자 복되나이다)

성경말씀: 이사야 58 장 7~10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중보기도:

모든 정치인이 정의와 참 지혜를 알고 올바른 일에 더 관심과 실천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나라와 모든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진정 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서 다 버리고, 빈 마음이 되고, 참사랑이신 주님만 갖고자 합니다.
오, 주님만이 제 소유요, 제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때만이 제 영혼이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제 뜻대로는 아무 일도 되지 말아야지이다.
지극히 세밀한 일까지가 다 주님 성의(聖意)와 계획하신 대로만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85장

후렴: (자비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 맞추리라)

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 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주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 마음 주께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화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다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리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리다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자비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 맞추리라)

성경말씀: 디모데후서 1 장 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중보기도:

삶과 평안의 보금자리인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 내며, 삶의 모범으로 이웃과 세상을 변화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어 진리의 빛을 비춰주소서.
그리스도는 사랑, 생명이니, 항상 믿음으로 묻고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모든 생명,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알아 선을 행하게 하소서.

(성금란)

오늘의 묵상 글: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요한복음 14장 1절) 이것은 그 시간에 드러나는 말은 아닙니다.
앞일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둔하니까 평생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시편: 86장 1~10절

후렴: (주는 좋으시고 인자하시며 한없는 자애를 베푸시나이다)

주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며,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주여, 나의 기도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다
대저 주는 광대하여 기적을 행하시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좋으시고 인자하시며 한없는 자애를 베푸시나이다)

성경말씀: 시편 119 장 25~32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어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놀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중보기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며 책망하시는 내적인 역사에 성도들이 순간순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예 전심으로 힘쓰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 실천
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의 은혜로 주신 기회를 회피하는 이 자식이옵니다.
환난의 기회만 있으면 회피하였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환난을 도리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오늘도 만 가지 은혜를 더 베풀고 계시지만,
그 중 한 가지에 감격해서 울음으로 사례하시는 성남성녀(聖男聖女)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요?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87장

후렴: (나의 모든 샘이 주 안에 있나이다)

거룩한 산 위에 터전을 삼으셨으니
주께서 시온의 성문들을 사랑하시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더욱 즐겨 하시며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놀라운 일들이 일컬어지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의 모든 샘이 주 안에 있나이다)

성경말씀: 로마서 12 장 4~5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꿀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혼의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니,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한 달 내 수입하는 별이는 없이 이같이 편하게 잘 살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어떻게 보답하오리까? 어리석은 저는 제 믿음 자랑할 길만 찾았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하게 해주소서.
주님 은혜로만 사는 종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기를 심히 소원하나이다.

시편: 51장

후렴: (주여, 내 죄에서 주의 얼굴 돌이키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리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시지 않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하시지 않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성을 쌓으소서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리니
그들이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내 죄에서 주의 얼굴 돌이키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성경말씀: 이사야 54 장 10~14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중보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이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뜻을 따라 복음전파 사역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제게 주어진 환경은
순경이나 역경이나 다 제 영혼을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될 것을 믿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내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스스로 버리지 말 것입니다.
질서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율례 모시고 살아갑니다.

2026년 6월 6일 토요일

시편: 119장 145~152절

후렴: (새벽부터 일어나 도움을 청하며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나이다)

주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으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주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법을 궁구하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새벽부터 일어나 도움을 청하며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나이다)

성경말씀: 마가복음 12 장 41~44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중보기도: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살피며 모든
이에게 이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올바르게 실현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에 자비로 사랑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에도 달게 희생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침묵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내 마음을 율법에서 은혜로 마음을 돌리니까 감사할 것 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가는 길은 감사할 길 뿐입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2026년 6월 7일 일요일

시편: 118장 10~18절

후렴: (주의 오른손이 큰일을 하셨도다)

못 백성이 이 몸을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 같이 소멸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높이 들렸으며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주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않으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오른손이 큰일을 하셨도다)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0 장 16~17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떤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중보기도:

인도자이신 주님, 가정 또는 사회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로하시고 살피 주시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주님의 산 말씀에서만 삽니다.
말씀을 붙어 넣으소서.
제 속에 말씀을 붙어 넣어 주소서.
산 말씀으로 살게 해 주소서.
산 말씀에서 힘을 얻도록 해 주소서.
산 말씀이 저를 굳세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영혼의 참된 안식은 오로지 자기부정 함으로써 찾아드립니다.

영혼의 참된 기쁨은 형제자매의 실덕(失德)을 나의 몸과 나의 영으로 범한 것으로 깨닫고
그 책임을 나의 것으로 지고 죽을 때만이 폭포같이 제 가슴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분께 드리는 고백, 김준호)

시편: 90장

후렴: (주여, 새벽부터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으며
산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나이다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간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 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 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수명이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량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햇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어지심이 우리 위에 내리시어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새벽부터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성경말씀: 마태복음 7 장 24~27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중보기도:

자비하신 주님, 사회의 불평등 속에서 소외되고 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굶어보소서. 그들이 고단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공동선이 실현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제 허물 깨닫고, 남의 허물 상관 말고,
스스로 검비하고 사람들 실수를 관대히 보게 해 주소서.
아버지 앞에 자복케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우리가 사랑만 있다면 여기에 모인 불쌍한 형제 자매들이 모인 자리가 천국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깨끗하심은 가장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해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깨끗했던 것입니까? 가장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자 깨끗했던 것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사랑이 제 가슴을 녹여 주셨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시는 무상의 사랑과 그 깨끗하시고 부활하신 사랑을 주님과 가장 죄 많은 사람과의 만남과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오! 이 은총을 받아들이기에는 마치 성(姓)도 이름도 없었던 성모님의 겸손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시편: 101장

후렴: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내가 자비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흠 없는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불의한 일을 감히 열썌하지 않으며
내 눈앞에 결코 두지 않으리다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않으리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으리로다

그 이웃을 그욕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않으리로다
내 눈이 이땅의 충성된 자를 살피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 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주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성경말씀: 요한복음 6 장 66~69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중보기도:

희망이신 주님,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부활의 빛이 그들 가슴을 비추어주소서.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은 단지 지나가는 한순간임을 깨달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용기를 얻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평화의 왕이시여,
성스러운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고통의 핏방울이
제 가슴속에 젖어들 때만 제 영혼이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 안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하느님의 자비의 신비가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참 가슴이 뜨겁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찾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시편: 108장

후렴: (하나님, 하늘 위에 나타나소서, 주의 영광 온 땅에 빛나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깟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숙곳 골짜기를 척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시지 않나이다
우리를 도와 원수를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원수를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 하늘 위에 나타나소서, 주의 영광 온 땅에 빛나소서)

성경말씀: 누가복음 8 장 49~50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중보기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도와주소서. 온갖 조롱과 수모를 이겨 내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헤쳐 나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뜻을 계시하시는 성령이여,
미리 아시는 하느님이여!

저와 동행하여 주소서.
앞으로 남은 때를 주님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일의 뒷처리를 주님께서 친히 홀로 하시기 바라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우리들은 항상 길 잃은 양처럼 찾고 있는 영혼들이며, 완덕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알아 흠모하기는 하지만,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에 이르지 못한 고아들입니다.
참사랑을 그리워하는 어린양입니다.

시편: 143장

후렴: (주여, 주의 영은 선하시니 고르디 고른 땅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는 진실하고 의로우시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얹어서
나로 죽은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나이다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오니
주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으니이다
주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주의 영은 선하시니 고르디 고른 땅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성경말씀: 골로세서 2 장 6~10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중보기도:

핵가족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소외되는 젊은이 또는 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족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세대 간의 이해 폭이 넓어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이나 제 것은 없애고 그리스도를 얻어야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오니
저도 주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선 당신을 버리고 저를 붙잡으셨으니,
저도 저를 버리게 하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우리 피조물에게 참 축복은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히 희망이 있어야 하며 영원히 커야 됩니다.
만일 자신이 다 커버렸다고 여기면 그게 절망이 아닌가요? 그 상태가 고목입니다.
다른 무슨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희망,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달에 있어서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초승달에서 희망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보름달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초승달로서 구도하라.
항상 초승달로 머물러 있는 것이 희망이다. 그게 겸손이다.
겸손은 초승달이고 보름달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절망에 빠지고,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시편: 51장

후렴: (주여, 내 죄에서 주의 얼굴 돌이키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시지 않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하시지 않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성을 쌓으소서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리니
그들이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내 죄에서 주의 얼굴 돌이키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성경말씀: 요한복음 13 장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중보기도:

지역과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 안에 있는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 속에
이 몸도 훨훨 타서 먼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은 울타리도 없고, 국경도 없고,
사랑의 평화가 있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주님! 물질보다 먼저 사랑을 주소서.
이웃에게 사랑을 주게 하소서.
물질도 주님께서 은혜로이 주심으로 쓰니다만,
그보다 사랑과 믿음은 놀라운 크고 아름다운 은사이오며 긴급히 요구하는 초자연의 은사로소이다.
사랑 없는 물질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과 은혜 없는 물질, 죽은 썩은 물질은 무엇하겠습니까?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92장

후렴: (의인은 주의 집안에 심어져 하나님의 뜰에서 꽃을 피우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주여,
주를 찬송함이 좋기도 하나이다
심현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아침에는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전하는 일 좋으니이다
주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다

주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심히 깊나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 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찌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니
주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주여,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흠어지리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주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번성할 것이로다
늘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의인은 주의 집안에 심어져 하나님의 뜰에서 꽃을 피우리다)

성경말씀: 에베소서 3 장 14~19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중보기도:

인자하신 주님, 온갖 불의와 혼란이 기승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지켜주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의 지킴이로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맡겨진 복음을 충실히 실천하고 전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품속에 숨을 때만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마태복음 11장 29절) 온유는 따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따뜻합니다.
생명은 따뜻합니다.
우주 만물이 사랑에 녹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따뜻하다는 말입니다.
소화 데레사 성녀는 예수님 자비의 사랑에 녹아났습니다.
성녀께서는 수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단지 예수님 편에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알려주신 말씀, 김준호)

시편: 149장

후렴: (북 치며 수금을 타며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그들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춤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리로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리로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 왕들은 사슬로, 그들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네
기록한 판단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리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북 치며 수금을 타며 주를 찬양하여라)

성경말씀: 마태복음 10 장 5~8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중보기도:

위로자이신 주님,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를 굽어살피소서. 소외된 이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도 주위의 소외된 이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주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죄를 질 때는 두려운 아버지이지만,
회개하는 아들에게는 피눈물을 같이 흘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해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51. 평화의 전령(傳令)

인류가 가장 목말라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부터 그 평화를 위임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평화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 평화의 전령으로 부름을 받은 당신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버린 인류의 가슴에
그리스도처럼 당신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김준호 글 재편집)

시편: 29장

후렴: (주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신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주께 바쳐라
영광과 능력을 주께 돌리고 돌릴찌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경배하리로다

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뇌성을 발하니
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주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주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주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고
주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리니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주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주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고
주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주의 소리가 참나무를 비트시고 숲들을 벗기시었네
모든 민족이 그 성전에서 큰 소리 높여 영광이여 하고 외치도다

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고
주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신다)

성경말씀: 시편 4 장 1~5

내 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이다.

중보기도: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과 인내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증거를 보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의식주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십시오.

참으로 예수님을 거짓말이 없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참된 인격을 생각지 못하는 생활은 진실로 아깝고 가련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귀하고 보배스러운 자기 인격을 날마다 생각하고 배양할 것입니다.
그것이 수양입니다.
수양이란 공부가 아닙니다.
직업이 아닙니다.
인격에 실력을 얻는 일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33장

후렴: (주의 계획은 언제나 한결같고 그 깊은 생각은 영원하시다)

너희 의인들이 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수금으로 주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하리로다

새 노래 불러 주를 찬미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하리로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시도다

그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니
세상에 주의 인자하심이 총만하도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김으로 이루었도다

주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며
세상에 사는 자 모두 다 그를 경외하리로다

주의 말씀 한 마디에 모든 것이 생겨났고
주의 명령 한 마디에 제 자리를 잡았나이다
주께서 열방의 계획을 흠으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주의 계획은 영원토록 한결같고
그 깊은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들아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여
모든 인생을 두루 다 보시도다
복되도다 그를 주로 삼은 백성들이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지켜 보시도다

그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된 것이니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도다
주의 눈이 주를 두려워하는 이들 위에 있나니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주소서

그들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기근시에 살게 하시도다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나니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주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계획은 언제나 한결같고 그 깊은 생각은 영원하시다)

성경말씀: 사도행전 3 장 6~10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중보기도:

공정하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비리와 부정의 유혹을 떨쳐 내고 언제나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결론은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사랑은 섬기는 것이요 희생이라면, 흠이 되고 먼지가 되고 쓰레기가 되고 찌꺼기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크게 보고 넓게 보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사랑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시편: 119장 9~16절

후렴: (나는 주의 규범을 묵상하고 주의 도를 깊이 생각하리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않겠노라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으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는 주의 규범을 묵상하고 주의 도를 깊이 생각하리다)

성경말씀: 히브리서 11 장 8~10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중보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깊은 깨달음으로 영적인 안목이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
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결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은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믿음은 생명나무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진액이 나와서 과실이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이지,
과실에서 진액이 나와서 나무에 과실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액을 받으려 않고 자기가 커보려 합니다.

참으로 믿으려고 힘쓰지 않고 일에만 힘씀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48장

후렴: (하나님이여, 주의 성전에서 주의 자비를 생각하나이다)

주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찬송하며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리니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음이여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불어내시니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그대로 우리가 보았도다
만군의 주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토록 견고케 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리로다
너희는 시온을 익히 보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성전에서 주의 자비를 생각하나이다)

성경말씀: 시편 139 장 1~5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히 아십니다. 내가 앉아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환히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당신은 매양 아십니다.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 할지, 야훼께서는 다 아십니다. 앞뒤를 막으시고 당신의 손 내 위에 있사옵니다.

중보기도:

모든 성도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주님의 청지기로서 뛰어난 근면성과 절약 정신으로 얻은 부를 공공의 선을 실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선용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각각 자기들의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첫 계시입니다.
이 길만이 개인이나 모임이나 모든 인류의 평화의 길입니다.
이 겸손의 덕이 매일매일 제 삶 속에 스며들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순결이란 모든 세상적 허욕이 떠난 마음자리요, 모든 욕정의 미련이 떠난 마음자리요,
그것은 깨끗한 예수님 순결이란 모든 세상적 허욕이 떠난 마음자리요, 모든 욕정의 미련이 떠난 마음자리요,
그것은 깨끗한 예수님 마음속입니다.
오, 순결은 가난한 마음자리에 깃들이나이다.
가난이란 자아가 완전히 포기된 겸손한 마음자리요, 모든 자애심(自愛心), 자고심(自高心),
자기 의지를 십자가에 못박고 새로난 사람의 마음자리입니다.
오, 가난은 순명한 마음자리에 깃들이나이다.
순명이란 절대 영혼의 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사랑을 받은 후,
그 사랑에 감격하여 행복한 사람의 절대 겸손한 마음자리에 깃들이나이다.

(그분께 드리는 고백, 김준호)

시편: 100장

후렴: (주는 선하시고 주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온 땅이여 주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
주가 우리 하나님이신줄 너희는 알찌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대저 주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선하시고 주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18 장 33~36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중보기도:

보호자이신 주님,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살피 주시고, 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25. 하느님이신 성령 (1)

마음속에
하느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당신 마음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와 규칙,

그리고 삶은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마음속에

하느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진리의 성령은

당신의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글 재편집)

시편: 117장

후렴: (주의 진실하심 영원하셔라)

너희 모든 나라들이 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저를 칭송하리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진실하심 영원하셔라)

성경말씀: 이사야 12 장 4~6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중보기도:

이 땅의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슬한 난관에 부딪혀 패배주의와 상처로 가득 찬 청년 세대들이 복음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게 걱정이 있고 번뇌가 있다는 것은 다 불신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번민이 있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모두 제 탓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기가 죄인인 줄조차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곧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일입니다.
물고기는 일생동안 물속에서 살면서도 물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죄 중에서 늘 살기 때문에 죄가 죄로 안 보이므로, 죄 없는 의인 행세를 하는 것이지요.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150장

후렴: (지극히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리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하리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리다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하리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리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함께 주를 찬양하리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지극히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여라)

성경말씀: 로마서 5 장 15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중보기도:

장애인들을 위한 관심이 잘 활성화되고,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여, 받으소서.
저와 사람과 물질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나를 어쩔까도, 내가 남을 어쩔까도, 내가 물질을 어쩔까도,
다 주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34. 사랑이 익다

우리에게
도무지 사랑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작은 이웃들에게 행하는 선한 일은
그저 미완의 몸짓일 뿐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죄를 고스란히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 안에
하느님 사랑이 익어갑니다.

(주님께서서 알려주신 말씀, 김준호 글 재편집)

시편: 119장 129~136절

후렴: (주의 법이 놀랍기에 제 영혼이 그것을 따르나이다)

주의 법이 놀랍고 기이하므로
내 영혼이 그것을 따르나이다
주의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열망하기에 나는 입을 벌리고 헐떡이오니
나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도 얼굴을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취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법이 놀랍기에 제 영혼이 그것을 따르나이다)

성경말씀: 창세기 12 장 1~4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중보기도: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사회의 아픔과 갈등을 싸매고 치유하는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회개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사랑의 보혈에 항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고, 예수님같이 다시 나게 하소서.
그 뜨거운 은총의 사랑으로 성화되는 전 인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같이 되는 것이 소원이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오늘 하루에 영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있습니다.

조알 한 알에 조 이삭이 전부 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하루를 찾자고 노력하는 것이고,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65장

후렴: (하나님, 주를 찬미함이 마땅하오니 시온에서 서원이 채워짐을 보리다)

하나님이여, 주를 찬송함이 마땅하오니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으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의 복을 실컷 누리며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이, 주께 희망을 두나이다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나이다

바다의 흥용과 물결의 요동을 잠잠케하시며
또한 만민의 환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는데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나이다

땅을 권고하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
이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 대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 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년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나이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여 있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며 노래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 주를 찬미함이 마땅하오니 시온에서 서원이 채워짐을 보리다)

성경말씀: 예레미야 15 장 19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중보기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불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치유의 희망을 언제까지나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일에 주님의 심장으로 하게 하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일을 처리할 때
땅 위에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든
"아들아, 내가 함께 하리니 앞 일에 겁을 내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항상 은혜를 내리심을 우러러 보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땅, 은혜 아니면 못살 땅이며,
은혜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땅, 은혜를 기다리는 생활만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은혜로만 살 것입니다.
은혜가 그치면 망할 것입니다.

시편: 97장

후렴: (의인에게는 빛이 솟아오르고 마음 바른 이에게는 기쁨이 솟나이다)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하리로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원수를 불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주의 앞에서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 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는 자 망신을 당하고
허무한 것으로 자궁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주께 경배하리로다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주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주께서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의인에게는 빛이 솟아오르고 마음 바른 이에게는 기쁨이 솟나이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1 장 68~79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별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돌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중보기도:

모든 성도가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오로지 자기 부정 속에 참 안식에 들어갑니다.
영혼의 참된 기쁨은 형제 자매의 잘못을 자기가 범한 것임을 깨닫고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죽어질 때만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부르심을 알아야겠습니다.
부르신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되겠습니다.
부르심의 상이 얼마나 귀하심을 알아야겠습니다.
그 상을 받도록 부르심에 순응해야함 되겠습니다.
그 상의 크심에 놀라야만 하겠습니다.

시편: 81장

후렴: (우리 힘이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하리로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찌어다

초승에 한 보름에 우리네 축제일에
너희는 우렁차게 나팔을 불어라
이는 이스라엘의 율레이며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구하여 주었노라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 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찌어다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나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팍한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그들의 원수를 치리니
주를 한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체 할찌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리라
그들에게 알곡의 진미를 먹여주리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채워주시어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우리 힘이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여라)

성경말씀: 마가복음 1 장 40~42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중보기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저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세상의 빛과 어둠을 가려내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열어 보이시려고 택하신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의 자비의 사랑, 그 은총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 은총, 그 사랑, 그 자애를 넣어 주시려고
골라낸 그릇 밖에는 부어줄 그릇이 없습니다.
주인이 쓰려고 골라온 그릇은 크거나 작거나 잘 생기거나 못 생기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택한 그릇은 잠잠히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주님, 과연 제가 교만하고 안 믿었사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진실로 어떻게 하렵니까?
대답하시되, "내 말대로 하라." 무슨 힘으로요? "나를 의지하라." 깨달음 주신 이에 대한 의무요,
깨달음 받지 못한 이들에게 대한 책임으로 충성껏 말씀해지이다.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시편: 147장 12~20절

후렴: (주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를 찬송하리로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주께서 네 문빚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네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흘리시며
우박을 떡 부스리기 같이 뿌리시나이다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주께서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않으셨나니, 그들은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성경말씀: 디모데전서 1 장 12~14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중보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사랑하게 해 주소서.
주님 기쁘게 해 드리고 슬프시지 않게 되기를 비나이다.
이 땅에 참 사람을 보내주소서.
마음 너그럽고 깨끗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오! 성삼위께 제 영혼을 맡깁니다.
저의 몸도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영혼 문제와 저의 육신 문제와, 저의 양들의 영혼 문제와 저의 양들의 육신 문제와,
전 인류의 영혼 문제와 전 인류의 육신 문제를 다 맡길 수 있도록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 위에 보내신 하느님의 그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분께 드리는 고백, 김준호)

시편: 119장 33~40절

후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이루소서)

주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이루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훼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이루소서)

성경말씀: 로마서 15 장 3~6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중보기도:

위로자이신 주님,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저희 민족을 굽어살피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며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제 가슴에서 자비의 샘이 터져 강이 되어 흐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지신 보배 가운데 자비만이 주님의 유일의 보배이시니,
앞으로 제가 구하는 것은 그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제게 주신다면,
성삼위와 전 인류와 모든 영혼들에게
참 평화와 강이 흐를 것을 믿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가장 깨끗한 사람과 가장 추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사랑 안에서는 똑같이
주님 사랑의 은총과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해졌음을 감사합니다.(에페소서 5장 26~27절; 요한복음 15장 3절
참조)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시편: 148장

후렴: (주의 이름만 홀로 높고 높으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양하리로다
주를 찬양하며 높은데서 찬양하리로다
그의 모든 천사들이 주를 찬양하리로다
모든 군대여 찬양하리로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이 찬양하리로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리로다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주께서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주께서 또 그것들을 영원토록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여 찬양하여라
그 말씀을 좇는 광풍아 찬양하여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아 찬양하여라

과목과 모든 백향목아 찬양하여라
짐승과 모든 가축아 찬양하여라
땅에 기는 것과 나는 새야 찬양하여라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아 찬양하여라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찬양하여라
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주께서 그 백성의 별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찬양거리로다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이름만 홀로 높고 높으시다)

성경말씀: 로마서 6 장 8~11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중보기도: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힘써 옳은 일을 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총으로 내리시는 성령의 성품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본질을 읽을 때,
제 영혼 속에 잉태된 그리스도의 성품이 기뻐 뛰나이다.
그 말씀들이 제 가슴에 스며들어
제 영혼이 항상 기뻐 뛰도록,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주여, 항상 저의 약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의 약함을 깨닫는 시간이 가장 제게 복된 것은, 크신 권능이 물밑 듯이 찾아주시는 까닭이로소이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96장

후렴: (모든 민족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주께 돌려 드려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하리로다
주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리로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전하고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리로다
주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방의 모든 신은 헛 것이요
주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라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이 주께 돌릴찌어다
영광과 권능을 주께 돌릴찌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찌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찌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주께 경배하리로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찌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주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찌라

주께서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하리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주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모든 민족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주께 돌려 드려라)

성경말씀: 마태복음 16 장 13~16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중보기도:

평화의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어지러운 세계를 굽어살피시어, 온 인류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며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직 평화의 열쇠는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주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것뿐입니다.
이는 주님의 품에만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오, 심오하신 사랑이여! 우주의 공간에 길 잃은 별들을 흔적도 없이 깨끗이 하는 천리(天理)가 있어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광대한 가슴 속에는 길 잃은 영혼들을 받아 안아 주시는 사랑의 심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의 가슴속에 빨려 들어 가기만 하면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깨끗해지는 심오한 은총이 있음을 믿고 저는 안심입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시편: 67장

후렴: (오곡백과가 땅에서 났으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어지신 그 얼굴을 드러내소서
또 다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소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알려지고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찌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곡백과가 땅에서 났으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이로다)

성경말씀: 에베소서 5 장 8~14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중보기도:

주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뿌리를 두고 말씀의 양분을 먹고 자라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45. 영혼의 성소(聖所)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으신 곳은
그 어디도 아닌
당신 영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곳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곳입니다.
우리 영혼은
나약한 죄인을 긍휼히 보시며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곳입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글 재편집)
